

부부간의 사랑



6 송봉호(대표주간)

유교에서는 가정의 핵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둔다. 유교 윤리의 기본으로 알려진 삼강(三綱)에서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부부유별(夫婦有別)보다 먼저고 삼강(三綱)에서도 부위자강(父爲子綱)이 부위부강(夫爲婦綱)에 앞선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우선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보다 (창 2:24, 마 19:5).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자연적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같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맺어져 있다. 이는 기독교가 자연종교가 아니라 인연의 종교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도 신화에서 가르치듯 신이 인간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인연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물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약속도 마찬가지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며 유일한 아내로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런데 그 약속에 신실할 때 부부는 서로 믿을 수 있고 가정은 안전하고 안정되어서 참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에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그 핵을 이룬다. 일생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서로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은 소설이나 영화에만 존재한다. 너무나 많은 짝은 부부가 그런 애송이 사랑이 사랑의 진부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판단하여 이혼한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란 말도 그런 송이저 사랑(ceulf love)을 참사랑과 혼동한 데서 생겨나는 오해다. 그러

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짧은 남자가 다른 여성에 관해서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 꿀림이 있어야 서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더 알아보려 하게 된다. 만약 그런 감정이 없다면 아무도 여성에 관해서 관심을 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이 적어 인류의 존속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사랑의 전부가 아니고 사랑의 핵심은 서로 믿고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한 것이다.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아단을 쳐도 서로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실함이 결여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감정적인 사랑은 참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결혼의 조건은 아니다. 나의 부모님 세대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불행하게 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고 아단을 치며 결혼한 요즘 젊은 것들이 더 많이 이혼한다. 성경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이 사랑을 ‘명령’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감정은 명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자 닥트(C. H. Dodd)는 아가페를 “감정이 나 애정(emotion or affection)”이 추가 아니고 “능동적인 의지의 결정(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관계는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감정에 근거한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삶의 안정도, 생산적인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부부간의 사랑은 그보다는 훨씬 더 깊어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한다. 합리성과 의지가 같이 작용해야 하고 감정이 그에 따라야 한다. 아가페 사랑에는 감정적인 애착이 동반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분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고 경고한다. 이 경고는 우선하여 부부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아내는 남편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으로, 모든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 인식하고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서로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서로가 상대에 가지고 있고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런 배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다.

이혼은 약속을 배신한 결과다. 성경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에다 비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간음이 모두 배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 것은 거기에는 모두 신실함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가정 부부들은 서로에게 철저히 신실함으로써 스스로 행복할 뿐 아니라 지금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한국의 가정들에 소금과 빛의 기능을 수행했으면 한다.



송봉호 박사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산대 로명지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석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대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